

## HEADLINE NEWS

### 「도시계획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설 (새크라멘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Sacramento)시는 시민들이 광범위한 도시계획의 쟁점과 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시민, 사업가,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에게市の 계획원리와 스마트 성장원리(Smart Growth Principles)에 대해 교육하는 종합과정으로,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 반에 약 2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업은 토론, 질의 및 응답, 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강사는市 공무원, 지역계획 전문가, 대학교수, 건축 관련 사업가 등이다.

「도시계획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은,市계획의 역사, 계획법제와 집행구조, 스마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사례, 역사적으로 오래된 지역의 성공 요인, 도시의 공지(空地) 이용 전략, 계획 결정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참여방안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는 명예 계획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www.cityofsacramento.org/planning/academy)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철도 선로 위 공중권 개발 계획 추진 (보스턴)
- ② 「우량맨션 등록표시제」 시행 (동경)
- ③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파리)

### 도시환경

- ④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조례 제정 (케이프타운)
- ⑤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학교 설립 추진 (조지아주: 데카 카운티)

### 도시교통

- ⑥ 운전자의 휴대폰 신호를 감지해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헬싱키)
- ⑦ 청소년 운전자 대상 안전운전 교육 실시 (애틀랜타)
- ⑧ 철도 안전교육 위해 '움직이는 입체영화관' 개관 (로스앤젤레스)

### 사회복지

- ⑨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첨단 음성 안내방송시스템 도입 (시애틀)
- ⑩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름캠프 개최 (델러스)

### 행재정

- ⑪ 시의회 홈페이지, 이용편의 향상으로 우수 웹사이트로 선정 (영국: 셰필드)
- ⑫ 도심부 치안 확보를 위해 CCTV 시험 가동 (뉴질랜드 웰링턴)
- ⑬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업무 처리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시카고)

### ① 철도 선로 위 공중권 개발 계획 추진 (보스턴)

미국 보스턴市 대중교통운영기관 '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는 현재 철도 선로 공중권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입체적 개발계획은 市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부내 주거지역의 확충 사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MBTA'는 철도 선로 위 공중권 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MBTA는 2004년 회계년도 기간에 이러한 부동산 개발 수입만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변지역 실정에 맞게 철도 선로 위에 기숙사나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계획은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www.boston.com/dailyglobe2/178/metro/MBTA\\_seeks\\_to\\_build\\_housing\\_over\\_rail\\_line+.shtml](http://www.boston.com/dailyglobe2/178/metro/MBTA_seeks_to_build_housing_over_rail_line+.shtml))

### ② 「우량맨션 등록표시제」 시행 (동경)

일본 東京都는 지난 4월 1일부터 「우량맨션 등록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都內 분양맨션 약 70만호 중 건물의 성능과 관리 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맨션을 「우량맨션」으로 인정·등록토록 하는 제도로서, 신축 및 중고 맨션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유도하고, 都民들에게 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맨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량맨션의 선정기준은 건물 성능과 관리부문으로 나뉘는데, 건물 성능은 맨션 공용 부분의 구조·안전·위생 등에 필요한 5개 항목으로 내진 성능, 화재시 안전성, 노후화 경감대책, 유지관리, 고령자 배려 등을 심사한다. 관리부문에선 관리조합, 관리규약, 장기보수계획, 보수적립금 등 맨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우량맨션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맨션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며, 우량맨션의 인정 유효기간은, 건물성능의 경우 신축맨션은 6년(중고 3년)이고, 관리부문은 신축·중고 모두 3년을 원칙으로 한다.

([www.jutaku.metro.tokyo.jp/y\\_manshon/140-01manshon.htm](http://www.jutaku.metro.tokyo.jp/y_manshon/140-01manshon.htm))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3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파리)

프랑스 파리시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센강 주변을 해변의 백사장으로 꾸미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야외에서 개최하는 등 활기찬 여름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여름행사에서는 각종 연주회 개최, 옥외 영화 상영 외에도 스포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답사 및 강연회, 전시 및 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킬리 강변에서 앙리4세 다리까지 3km 구간이 해변으로 조성되고, 시내 220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수영장 등에서도 시민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8월 6일에서 24일까지는 야간에 옥외에서 무료 영화가 상영된다. 모든 스포츠 및 문화행사는 시 홈페이지에 세부 일정이 소개되어 있다. 시는 모든 연령층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올 여름 '새로운 파리'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paris.fr/FR/actualites/ete\\_paris/default.htm](http://www.paris.fr/FR/actualites/ete_paris/default.htm))

### 4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조례 제정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시는 최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공포했다. 그동안 대기오염 규제는 대도시 지방정부에서 시행해왔으나, 규정의 미비, 일관성 없는 정책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새로운 조례는 도시 전체를 대기오염제한지역으로 선포, 산업 대기오염을 비롯하여 디젤엔진 차량, 먼지, 가스, 연무, 증기, 진분 및 주택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매연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는 무연지역 (smokeless zone)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연료 사용의 제한과 소환장 발부 권한이 있다. 만약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4만 Rand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확립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www.capetown.gov.za/press/Newpress.asp?itemcode=598](http://www.capetown.gov.za/press/Newpress.asp?itemcode=598))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학교 설립 추진 (조지아주: 데캡 카운티)

미국 조지아주 데캡 카운티 교육당국은 자연보호구역 내에 신설하는 학교를 환경친화형으로 조성하는 시범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총 3천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인 이번 계획은 주변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디자인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꾸밀 예정이며, 교과과정 또한 환경 및 생태학적 측면을 보다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 전지 및 열효율이 높은 조명, 중수의 사용으로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지역 내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교시설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다. (The Atlanta Journal-Constitution, 2003. 7. 8)

### 6 운전자의 휴대폰 신호를 감지해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헬싱키)

핀란드의 헬싱키시에서는 일반 개인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신호를 감지해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최근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 교통부와 한 휴대폰업체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신호를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가 감지해 실제 통행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교통정보 센터로 보내면 센터가 교통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abcnews.go.com/wire/Business/ap20030708\_1317.html)

### 7] 청소년 운전자 대상 안전운전 교육 실시 (애틀랜타)

미국 조지아주는 청소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Georgia Teens Ride with PRIDE」라는 이 프로그램은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40시간에 걸쳐 청소년 운전자 및 부모들에게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주로 14~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전운전에 관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몇 차례의 시범 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입법절차를 거쳐 청소년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www.macon.com/mlc/macon/6129029.htm](http://www.macon.com/mlc/macon/6129029.htm))

### 8] 철도 안전교육 위해 '움직이는 입체영화관' 개관 (로스앤젤레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市에는 철도 안전교육을 위해 'Metro Experience'라는 '움직이는 입체영화관'이 개관되었다. 'MTA(Los Angeles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가 개설한 이 영화관은 입체화면, 음향, 바람효과, 움직이는 의자 등을 통해 관람자가 철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철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실제 상황처럼 느낄 수 있다.

이 영화관의 개설은 철도가 신설되는 지역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철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MTA'는 이 영화관 설치 외에도 학교 방문 및 지역사회 모임 등을 통해 철도통과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철도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철도 건널목 주변에 차량 및 보행자 감지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biz.yahoo.com/prnews/030509/laf054\\_1.html](http://biz.yahoo.com/prnews/030509/laf054_1.html))

### 9]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첨단 음성안내방송 시스템 도입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 대중교통운영기관인 'Sound Transit'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Point and Go」라는 음성 안내방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 크기의 수신기와 철도역 등 주요 대중교통 관련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송신기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수신기를 이용해 송신기를 향해 신호를 보내면 송신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수신기를 통해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되는 것이다. 이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위치, 대중교통 노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135,000달러가 투자되는 이 시스템은 안내표지판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도입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며, 올 연말에 도입 성과를 보고 전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샌프란시스코 및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이미 여러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attlepi.nwsource.com/transportation/123578\\_talkingsigns26.html](http://seattlepi.nwsource.com/transportation/123578_talkingsigns26.html))

### 10]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름캠프 개최 (댈러스)

미국 댈러스시는 최근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름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Send a Kid to Camp」를 시전역에 있는 18개의 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스포츠, 게임, 수영, 자연학습, 생활태도 개선교육, 연구여행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 존중, 스포츠정신, 대인관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발전시키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월~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7주간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보호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원에 직접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와 기업, 시민이 함께 후원하는데, 시민들은 수도요금 청구서 봉투에 기부금을 넣어 되돌려 보내는 방법으로 캠프를 후원할 수 있다. 시민들이 낸 모든 기부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다.

([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send\\_a\\_kid\\_to\\_camp.html](http://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send_a_kid_to_camp.html))

### ④ 시의회 홈페이지, 이용편의 향상으로 우수 웹사이트로 선정 (영국: 셰필드)

영국 사우스요크셔주(州) 셰필드 시의회는 시력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으로부터 A-Site 등급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홈페이지 접근 편의성을 86%까지 향상시켰으로써 영국 내 최우수 웹사이트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웹사이트 개편은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의회 전략사업으로, 새로운 웹사이트에는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의회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는 각종 서비스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수록한 'Contacts Book' 코너가 있는데, 시민들은 이를 통해 버려진 차량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 및 신고가 가능하다.

([www.sheffield.gov.uk/plugins/press/news/release.asp?akey=1148](http://www.sheffield.gov.uk/plugins/press/news/release.asp?akey=1148))

### ④ 도심부 치안 확보를 위해 CCTV 시험 가동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턴市는 도심부 치안 확보를 위해 시내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CCTV를 설치하여 시험 가동중이다. 이 CCTV는 150m 줌을 장착하고 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해 설치장소 주위를 넓게 감시할 수 있다. 市에 따르면, 이 CCTV 시스템은 범죄 발생 후 범주자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총체적인 도시치안 패키지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아직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시험 가동을 통해 도심부의 치안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곧 시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市경찰당국과 도시치안 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웰링턴市를 뉴질랜드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ww.wcc.govt.nz/news/press/2003/mayor/nr1048199073.html](http://www.wcc.govt.nz/news/press/2003/mayor/nr1048199073.html))

###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업무 처리 위해 '위치 추적시스템' 구축 (시카고)

미국 시카고시는 최근 시소속 차량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Multi-Agency Government Integrated Communications Network」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GPS와 GIS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소속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는 일부 부서만이 참여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부서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올해 2개 부서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약 2백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americancityandcounty.com/ar/government\\_chicago\\_tracks\\_fleet/index.htm](http://americancityandcounty.com/ar/government_chicago_tracks_fleet/index.htm))